

안경 이야기

원시(遠視)와 노안(老眼)



이상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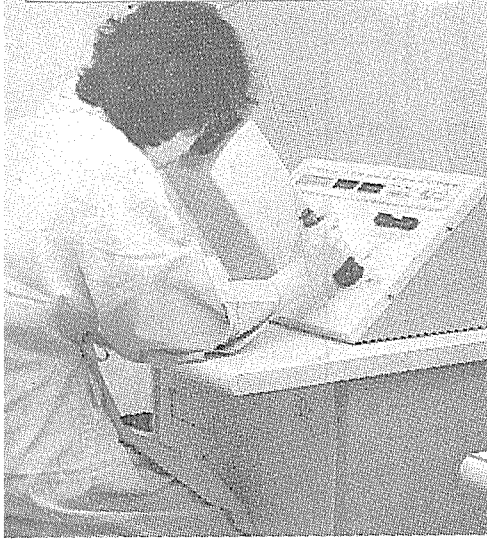
눈의 굴절상태(屈折狀態)는 나이와 더불어 변하고 있다. 갓난 아기의 눈은 대체로 원시이지만 유아기를 지나서 청년기에 접어들면 차차 근시가 증가해서 20세쯤 되면 굴절이 안정된다.

우리나라의 국민학교 아동의 통계를 보더라도 1학년에는 원시가 근시보다 많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차차 원시는 줄어들고 대신 근시는 증가한다.

원시란 아무 조절을 안하는 상태 즉 먼 곳을 보고 있을 때 눈앞에서 들어오는 평행광선이 눈의 망막(網膜) 뒷쪽에 초점을 맺는 상태를 말한다. 즉 이름 그대로 먼 곳의 물체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곳은 잘 안 보이는 눈을 말한다. 그러나 중등도(中等度)이하의 가벼운 원시에서는 눈이 조절을 해서 이러한 굴절이상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잘 보이고 큰 지장은 없다.

그러나 중등도 이상의 원시가 되면 먼 곳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조절이 과도하게 되므로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사팔눈이 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조절이 과도하게 하므로 안정피로(眼精疲勞)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책을 보면 눈물이 핑 돌고 앞머리와 눈이 아프고 쉬 피로하며 심할 때는 메스껍고 토하기도 한다.

눈이 쉬 피로하고 머리나 눈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 특히 어린이는 안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도원시(高度遠視) 때는 여러가지 선천적인 병이 함께 온다. 아주 심한 원시는 유전으로 온 것으로 생각된다.

흔히 우리는 안경이란 시력이 나쁠때만 쓰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래서 먼곳이나 가까운 물체가 안보일 때만 비로소 안경을 찾게 된다. 그러나 원시가 심하지 않을 때는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을 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시를 눈자체가 교정하느라고 과도하게 조절을 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가져온다. 이럴 때는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력이 1.5이상이다 할지라도 원시안경 즉 볼록렌즈를 끼워줘야 한다. 그래야 눈의 피로와 두통을 공부할때 호소하는 사람에게 원시가 있을 때는 맞는 안경을

씩워주는 것만이 치료법이다.

흔히 안과에서 우리 아이는 시력이 좋은데 안경을 쓰라니 웬일이냐고 불평을 하는 부모가 있고 또 안경을 만든 다음에도 잘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안경이란 시력만 잘 보이게 할 때만 필요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만 보인다고 함부로 아무 안경이나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또 눈의 상태를 잘 검사해서 안경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 어린아이에서 중등도 이상의 원시가 있으면 눈이 안쪽으로 물리는 사팔, 즉 내사시(內斜視)가 되는 수가 있다. 이럴때도 사팔눈은 곧 수술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수술을 받아서는 안된다. 원시 때문에 온 것은 눈에 정확하게 맞는 원시안경을 씌워주면 돌아간 눈이 수술 안받고도 바로 잡아지는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시력이 좋아도 꼭 안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력만 재서 좋으면 안심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눈이 쉬 피로하고 머리나 눈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 특히 어린이는 안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근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또 무서워하고 있으나 원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고 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람이 중년에 접어들면 몸이 젊었을 때만 못하게 느끼게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타나고 또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눈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 60이 되어도 바늘귀도 꿰 수 있다」고 자기의 스테미너를 자랑하고 노화 현상이 늦게 온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어느 누구든 눈의 조절(調節)기능의 노화는 나이가 들수록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사람이 근시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가까운 곳의 물체를 잘 볼 수 있다는 것 뿐이다.

우리 눈은 잘 되어 있어도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을 볼 때 자동적으로 그 물체에 초점이 맞게 되어 있다. 이렇게 거리가 다른 물체를 볼때 초점을 맞추는 작용을 하는 것을 조절(調節)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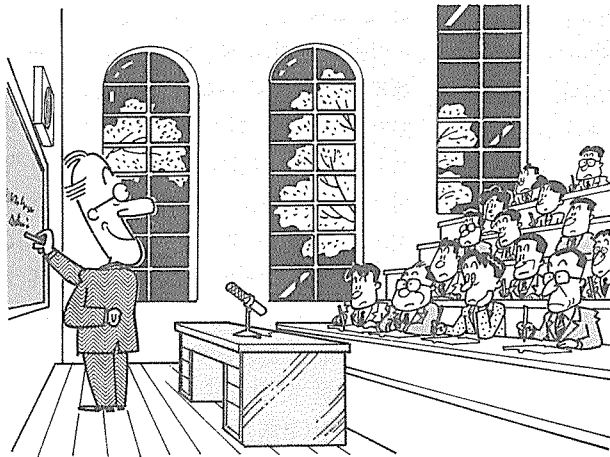
눈의 조절은 눈속에 있는 수정체라는 카메라로 치면 렌즈에 해당하는 것이 부풀었다 납작해졌다 해서 조절하고 있다. 가까운 곳을 볼수록 많이 부풀어져야 된다. 그

러나 카메라에는 우리 눈과 같이 이런 자동장치가 없으니까 일일이 찍을 때마다 거리에 맞추어서 렌즈의 위치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자동핀트 조정장치가 나이가 들면 제구실을 못하게 되니 곤란하다. 보통 45세 전후가 되면 책이나 신문을 볼려면 아물거리고 잘 안보인다. 좀 멀리 띄어놓고 보든지 환한 곳에서나 겨우 보인다. 이것이 즉 노안의 증세이며 이제 늙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기분 나쁜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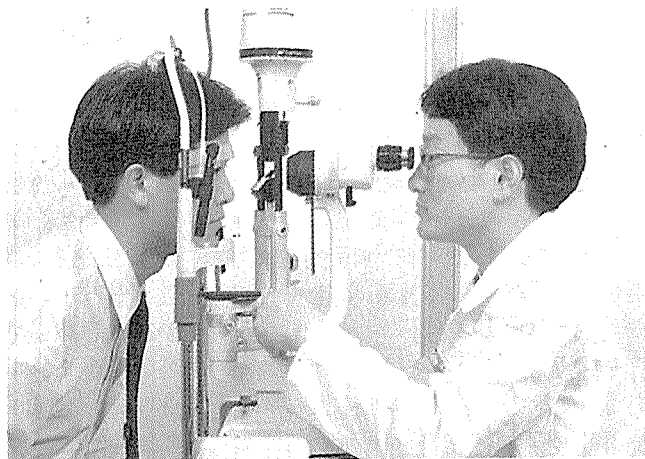
물론 어느 정도의 개인차는 있다. 이렇게 눈의 조절력이 약해져서 가까운 것이 잘 안보이는 것은 눈속의 수정체가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져서 탄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분히 부풀어서 가까운 곳을 보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조절을 도와주기 위해서 볼



노안은
일종의
노화현상이지만
원시는
어느 연령에서나
올 수 있는
결절이상이다.

돋보기도
눈의 상태,
개인의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록렌즈의 돋보기 안경을 써야 가까운데가 잘 보인다. 같은 볼록렌즈를 쓰기 때문에 원시(遠視)와 혼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원시와 노안은 전혀 다른 것이다.

노안은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일종의 노화현상이지만 원시는 어느 연령에나 올수 있는 먼 곳의 것은 잘 보이나 가까운 곳이 잘 안보이는 굴절이상(屈折異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원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돋보기는 이름 그대로 물체가 크게 돋보인다는 뜻인데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임진왜란때 중국 사신이나 일본 승려가 돋보기를 쓰고 책을 잘 보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기록이 있다. 해방전만 해도 돋보기는 크게만 보이고 가까운 책이나 잘 보이면 그만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안경점이나 심지어는 노점에서 40대는 40경(鏡), 50대 사람은 50경식으로 눈에 맞는 것을 골라서 끼는 수가 많았다.

돋보기를 맞추는 것도 눈의 모든 상태를 고려하고 또 개인의 직업, 연령등을 고려해서 정확히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정확한 처방을 받은 다음 안경점에서 만들어야 된다. 또 돋보기는 잘 보인다고 강한 것을 끼우면 눈이 피로해져서 머리까지 아파지는 수가 있으니 좀 약한 것을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눈의 조절력은 나이가 들수록 비례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돋보기도 적어도 2년에 한번쯤은 다시 처방을 받아서 갈아야 된다. 그밖에 돋보기를 맞춘지 얼마 안되어서 돋보기를 끼워도 책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눈에 이상이나 전신 질환이 있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곧 전문의를 찾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40대 중반에 노안이란 요즘 세상엔 너무나 것 같아서 내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장안(壯眼)이라고 부르고 싶다. [7]

〈필자=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안과과장〉